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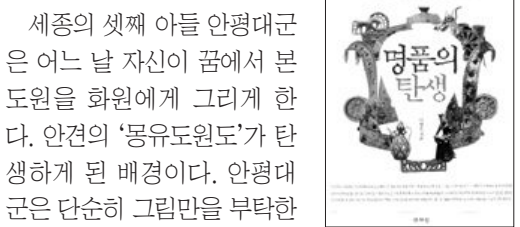
북스

Books

위대한 컬렉터가 명작을 낳는다

명품의 탄생

이광표 지음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어느 날 자신이 꿈에서 본 도원을 화원에게 그리게 한다.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안평대군은 단순히 그림만을 부각한 게 아니라 2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한 조선 최고의 컬렉터였다.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저서를 출간하고 있는 이광표의 신간 '명품의 탄생'은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컬렉터를 소개한다.

18세기 자의식 강한 컬렉터 김광수, 중인 출신의 조선 최고 컬렉터 김광국, 역관이면서 예술에 대한

해안을 지닌 오경석과 그의 아들 오세창, 고려청자를 지켜낸 전형필, 김정희의 '세한도'를 구한 손재형, 그리고 성문종합영어의 저자인 송성문 등의 일화를 들려준다.

안평대군은 화화를 수집한 대표적인 조선의 컬렉터이다. 신숙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누군가 그림을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값을 치고, 그림을 구했고, 당·송대의 고예술품은 망가진 비단이나 종이 조각이라도 구해서 감상했다"고 한다.

그는 산수화 84점, 인물화, 글씨 등 모두 222점을 소장했고 안견의 가장 든든한 후원인이었다. 안견은 안평대군의 지원 속에 그림 능력을 키워갔고, 이로 인해 '몽유도원도'라는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

서예가 겸 컬렉터 손재형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제180호)가 일본의 추사 연구자인 후지쓰카 지카시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1944년 일본 도쿄로 건너갔다. 손재형은 몇 달 동안 매일 같이 찾아간 끝에 결국 후지쓰카의 마음을 움직여 세한도를 받아들 수 있었다.

얼마 뒤 후지쓰카의 집에 포탄이 떨어져 불이 났으니 그때 손재형이 세한도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영영 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조선시대 컬렉터들의 작품에 대한 열망은 더욱 뜨거웠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골동품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기도 했다. 그들의 수집 대상은 다양했다. 서책, 그림, 청동기, 글씨 탁본, 수석, 괴석 등을 다지는 대로 모았다.

중인 출신의 조수삼은 웃을 벗어 옛 자기와 바꾼 손 노인의 일화를 담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산을 모두 골동품과 바꾸고 보다 못한 이웃집에서 보낸 아침밥마저 사양하는 손 노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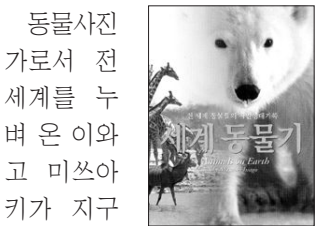
이들이 남겨놓은 그림과 글씨, 지도, 서적, 도자기 등 180여 점의 사진 자료가 풍부하게 소개됐고 전문화·대형화·국제화하는 현대의 컬렉션 경향과 최근의 경매 현상까지 다뤘다.

〈산처럼·1만8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견이 자신의 후원자였던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화폭에 옮긴 '몽유도원도'.

동물들의 아름다움 사진집 '세계 동물기'



동물사진가로서 전 세계를 누벼 온 이와고 미쓰야카가 지구 동물들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세계 동물기'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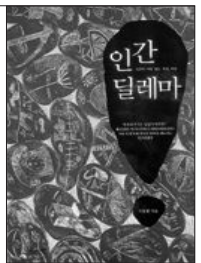
동물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월별로 묶어 달력 형식으로 엮은 이 책에는 자자가 37년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남극, 인도의 정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오가며 직접 찍은 1천 컷에 달하는 방대한 사진과 300여 종의 세계 동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전 가지 빛깔로 생생히 빛나는 사진 속 동물들은 멈추지 않는 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광활한 대자연에 두려워하지 않고 곳곳에 살아가는 세계 동물들의 모습은 우리를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세계로 이끈다.

〈진선북스·4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인간 딜레마

이용범 지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특히 장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진 요즘은 한 번의 선택으로 지불하게 되는 기회비용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의 본능과 이성 이 가리키는 방향이 선악과 기호의 문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되풀이 될 만한 질문이다.

소설 '얼음꽃', '열한 번째 사파나루'와 교양서 '인생의 참승 선비', '사람' 등을 쓴 작가가 이용범씨의 '인간 딜레마'는 인간의 존재를 딜레마의 문제로 풀어 쓴 본격적인 인문교양책이다.

'인간의 존재' 딜레마의 문제로 풀어 쓰다

저자는 '인간은 운명으로 결정된 존재인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인가'하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는 스스로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변 그 '딜레마'에 대해 탐구한다.

전체 3부 구성으로 1부에서는 일반적인 선택의 문제를, 2부에서는 도덕의 기제가 작동하는 원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제를, 3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유전적 본성과 충돌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인류의 짝짓기 문화와 비합리적 문제를 살펴본다.

어떤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단편적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사고를 환기시키는 다양한 사례를 각종 심리학적 실험 결과와 논문, 저서를 총동원해 제시한다.

그러나 저자의 '인간 탐구' 목적은 분명하다. 저자는 인간 본연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복잡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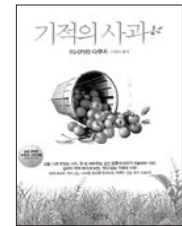
다면적이며 혼란스럽기까지 한 인간 심리와 행동의 이면을 살펴보고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글을 읽으며 방대한 길고 긴 탐구의 목적을 밝힌다. "유전과 진화에는 선악의 개념이 없으며, 인간이 공멸어 쌓아온 문화조차 본성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인간의 본성부터 철저히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은 다음일"이라는 것이다.

책은 인간 내면을 탐구하는 소설가이자 사회문화 철학자로서 저자가 야심 차게 기획한 인문교양책인 딜레마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결실이다. 앞으로 '시각 딜레마' '신 딜레마'가 나올 예정이다.

〈생각의 나무·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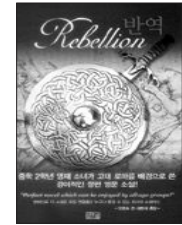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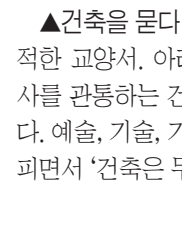
▲가적의 사과=논픽션 작가 이시카와 다쿠지가 일본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맛 때문에 '가적의 사과'로도 불리는 사과를 재배한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씨의 성공담을 추적한 책이다. 일평생 오로지 사과에 미쳐서 세계 최초로 찍지 않는 가적의 사과를 생산하며 온 세상을 뒤흔든 한 농부의 인생 성공 비결을 쉽고 잔잔하게 풀어냈다. (김영사·1만1천원)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로 구성된 '학생생활연구회' 산하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명의 교사들이 9년간에 걸친 연구와 4년간의 집필기간을 거쳐 완성한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조화되고 일상화된 학교폭력의 현실을 꿰뚫어 보았다. (영철북·1만2천원)



▲반역 Rebellion=중학교 2학년 영재 소녀 이소영양이 쓴 장편 영문 소설.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전쟁(또는 제3차 노예전쟁)을 소재로 귀족 옥타비아스와 노예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우정과 갈등, 폭정의 억압에 저항하며 자유를 갈망하는 고대 로마인들의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로마인들의 미묘한 로맨스까지 담았다. (일송북·2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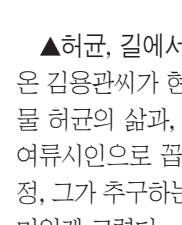
▲건축을 묻다=건축을 둘러싼 역사·사회적 맥락을 집요하게 추적한 교양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까지 유럽사를 관통하는 건축과 건축가, 그리고 건축정신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예술, 기술, 기능, 공간, 사회 같은 개념이 건축과 맺는 연관을 살피면서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휴형출판·1만5천원)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패션지 VOGUE에서 피쳐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김지수 기자가 그간 써온 100편의 인터뷰중 17편을 선별하고 에세이를 더해 엮은 인터뷰집이다. 책에 소개된 예술가, 배우, 저널리스트, 모델, 패션 디자이너 등은 각자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우리 시대 문화이콘들이다. 이들에게서 이끌어낸 마음의 위로 그리고 일, 사랑, 인생의 성취에 대한 조언들을 통해 삶과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찾고자 한다. (홍시·1만2천800원)



▲아신 김성근, 꼴찌를 일등으로=최후의 조련사, 벨레야구, 지옥의 승부사, 데이터 야구..... SK와이브스 김성근 감독의 시련과 실패에 굴하지 않고,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온 일대기를 담은 자서전이다. 알려지지 않았던 김성근 감독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시련과 실패에 굴하지 말라, 배우고 또 배우라'는 인생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도 실려있다. (자음과모음·1만3천원)



▲허균, 길에서 살며 사랑하다 죽다=인물 평전이나 역사서를 써온 김용관씨가 현대인의 호기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역사적 인물 허균의 삶과, 우정을 소설적 기법으로 되살려냈다. 당시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꼽히던 이매창을 만나는 과정부터 허균의 사랑과 우정, 그가 추구하는 세상 또 그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과정 등을 재미있게 그렸다. (부록·1만3천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요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해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매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세/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속박시세/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공장/보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전/건물 86억 28억	한리사파빌드	소재지 대전/건물 10억 5억	비고	소재지 대전/건물 7억 3억	비고
아주시 대2830,21466	86억 28억	화순군 대2240,2466	10억 5억	전남권 대346,21253	7억 3억
충주군 대59,2236	7억 3억	화순군 대410,2871	32억 14억	화순군 대4077,23147	39억 18억
대전시 대53,2193	4억 2억	신안군 대106,2343	11억 3억	대전시 대378,2912	26억 11억
충주군 대167,2086	28억 15억	충주군 대40,2530	12억 4억	달양군 대1243,2947	4억 3억
화순군 대190,21820	66억 30억	백운군 대154,2420	14억 7억	곡성군 대4008,2913	39억 19억
해남시 대1380,2287	12억 4억	영광군 대99,2436	14억 8억	홍천군 대1049,2361	15억 8억
화순군 대183,2259	7억 4억	순천시 대388,2738	31억 17억	무안군 대1419,21057	11억 5억
순천시 대23549,2290	19억 3억	양성군 대174,2424	14억 3억	달양군 대4100,2996	28억 28억
농성시 대790,21160	67억 37억	양성군 대45,2159	2억 1억	영광군 대500,2292	29억 19억
수원시 대102,2425	13억 4억	제천시 대388,2738	31억 17억	홍천군 대999,2374	17억 11억
오창시 대289,2070	22억 11억	제천시 대183,21820	66억 30억	도곡면 대1359	8억 4억
수원시 대183,2259	7억 4억	제천시 대183,21820	66억 30억	무안군 대13980	4억 4억
수원시 대183,2259	7억 4억	제천시 대183,21820	66억 30억	봉곡면 대4819	13억 4억
수원시 대183,2259	7억 4억	제천시 대183,21820	66억 30억	수곡면 대507	19억 19억
수원시 대183,2259	7억 4억	제천시 대183,21820	66억 30억	함평군 대462	22억 18억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236-3400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금"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 (010)223-1140, ☎ 011-8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